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월례회로 모입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보은에 있는 월송 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을 기도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에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이지훈씨와 김진영씨의 결혼식이 8월 9일 오후 1시 대전 둔산사학연금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30분에 버스가 떠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일(10일) 오후 1시부터 교육관에서 중고등부가 주관하는 후원금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대전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돕기 위한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격려의 말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자비하신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도 새벽의 고요함과 저녁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더위와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 휴가를 즐기는 요즘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길 원하여 나왔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휴양지보다는 주님과 걷는 한적한 오솔길이 좋아 이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 자꾸만 뜨거워지는 기온보다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에 사람들은 살아갈 힘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양극화로 이 사회의 갈등의 장벽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해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셔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김기석 김희우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김일량 이은옥 김용길 최영혜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김혜권
 박규석 박경선 방민 오진훈 노순옥 정완수 김재광 진월수 정복순
 최종원 문복순 최현순 왕성환 강순배 정미경 김지호 안종일 정현주
 권미숙 윤석철 장혜숙 무명

월정현금:

김명순 김영순 김영환 이희균 김성자 서정순 왕수명 윤주원 최윤선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병철 김현진 이봉배 장재영 김재영 최철수
 광권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김순자 박범희 박미영 이은자 이현순
 류건형 이주은

감사현금:

김준우 윤석철 장혜숙 이증자 김혜인 배부례 왕성환 강순배 정은영
 박창운 허정윤 오래된미래 무명6

생일현금: 권미정 이정은

녹색공헌금: 김금순 김용길 최영혜 무명1
 (누계: 1,510,000원)

	장혜숙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박홍재	광권희		
	박효선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	심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백혜숙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일상의 순례길에서 드리는 묵상 기도

그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기를
 앞서간 발길들이 그대의 걸음걸음에 복이 되기를
 그대 심령의 날씨가 정말 중요한 날씨가 되기를
 그대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마음속에 동지를 틀기를
 그대의 기도가 다른 순례자들을 위해 뒤덮인 꽃과 같기를
 그대의 마음이 뜻밖의 사건들 속에서 의미를 찾기를
 그대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내내 그대를 안고 가기를
 삶의 동심원이 길 가는 내내 그대를 에워싸기를
 깨어진 세상이 그대의 어깨 위에 목말을 타기를
 그대 영혼의 배낭에 그대의 기쁨과 슬픔을 지고 가기를
 그대가 온 세상 모든 기도의 고리들을 기억하기를

평화의 임재가 되기 위한 묵상 기도

제 영혼의 보호자시여
 오늘 하루 길 가는 저를 인도하소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주님과 주님의 땅과 주님의 온 가족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제가
 주님의 평화의 임재가 되게 하소서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가야할 곳이 분명한 이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들의 뜻대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도를 말과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늘 말이 앞서고 몸이 뒤쳐지는 우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 더디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늘 지켜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월례회	8월 기도의 밤
찬양 인도 / 장성호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한상의 장로	인도자 박석희 집사

8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용진 권혁순 박효선 문영혜 박혜경
	헌금위원	김인걸 이순정(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물론 지구생명의 푸른 미래를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무 그 푸르름에 기대어

간밤엔 연못에서 울어대는 맹꽂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 치악산 골짜기의 적막을 깨뜨리며 짹 짹 울어대는 맹꽂이들. 그 소리에 밤이 늦도록 뒤척였지만, 저 맹꽂이들이야말로 본격적으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들이 아닌가. 지상의 새싹보다 먼저 나온 물에서 핀 새싹들. 새싹을 부르는 새싹들의 파릇파릇한 울음소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층 베란다에서 작은 연못을 내려다보니, 지난밤 그리 시끄럽게 울어대던 맹꽂이들이 물 밑에 숨어버렸는지 보이지 않는다.

개울 건너편엔, 벌써 포크레인과 공사 차량 몇 대가 서 있다. 통나무 주택을 지어서 파는 최씨의 모습도 보인다. 그런데 통나무집을 지으려고 다져놓은 집터 옆으로 평소에 보이지 않던 키 큰 소나무들이 여러 그루 누워 있다. 수목원 같은 데 이식해 놓았던 것들을 심으려고 옮겨온 모양이다. 누런 포대와 새끼줄에 뿌리 부분이 뒹뒹 감긴 소나무들, 수령이 몇 십 년씩은 돼 보인다. 헛참, 별일이군, 최씨가 망령이 났나, 철이 들었나?

나는 나무를 보니 무조건 반가워서 서둘러 옷을 꺼입고 최씨네 주택공사장으로 갔다. 사실 나는 지난해 최씨와 좀 심하게 다투었다. 개울에 있는 자연석들을 그가 무단으로 훼손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중에 훼손한 것을 복구했기 때문에 곧 화해하긴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로 자칭 통나무건축가인 그를 이쁘게 봐줄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따라 그가 무척 이쁘게 보였다. 사오십년 생 소나무 삼십 그루를 집터 주위에 심겠다는 것이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일이 아닌가.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바라만 보아도 심사가 편안해지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우뚝 들어올리지 않던가. 최씨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심지만, 그 이익은 자기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무 심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자비의 옷감으로 짜여진 우주만물의 조화로운 일원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무 심는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은

그렇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값없는 게 귀하다는 걸 절감하게 된다. 우리가 가까운 숲으로 산책을 나설 때마다 나무의 푸른빛에 기대어 하루를 살아갈 활력을 얻지 않던가. 그 푸른빛은 공짜다. 아니, 나무들이 베풀어주는 값없는 선물이다. 우리는 값진 금화나 보석 따위는 없어도 살지만, 나무의 푸른빛이 없으면 어디서 활기찬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맑은 공기, 저녁놀, 무지개, 수평선 같은 값없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영위할 수 없다.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처럼 값없는 것들의 소중한 가치를 망각해버렸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이 병들고, 그 삶이 점점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다.

인간이 지구 위에서 환경재앙을 이겨내며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지구인간 1인당 1,000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간은 이처럼 나무에 기대어 산다. 자연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상호 의존하며 사는 것처럼, 인간과 나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일찍이 이것을 깨달은 성 프란체스코 같은 성인은 나무, 물, 공기, 불을 형제자매로 대했다. 그는 나무 한 그루, 물 한 모금에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값없는 것들이지만, 그 값없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 지상에 발붙일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값진 것은 우리 영혼을 값없이 떠받쳐주는 다른 생명체들 때문이다.

나는 수목원에서 나온 인부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는 최씨에게 말했다. “최형, 정말 오늘 큰일 하시는구려!”

이 말은 진심이였다. 식목일이 다가와도 나무 한 그루 못 심는 나는, 나무를 심는 최씨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정말 격려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 발린 겸양 따위를 떨 줄 모르는 그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다.

“집을 지어놓으면 잘 팔려야 하니까 나무를 심는 것뿐인데 뭐!”

그래, 그런 최씨의 솔직한 말뿐새 또한 얼마나 이쁘가. 하여간 나는 그가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잘 착근해서 무럭무럭 자라주기를, 빌고 또 빌 뿐이었다.